



청취자와 1:1 상담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소통하고

SBS 라디오 봄 맞이 개편

SBS 라디오가 봄 개편을 맞아 바뀐다. 러브FM(103.5MHz)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새 단장한다. 오전 11시에는 남희석의 '사이다'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듣고 1:1로 상담을 하고, 개그맨 윤형빈·양세형은 낮 12시 20분부터 두 시간동안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투맨쇼'를 맡아 '컬투쇼'의 아성에 도전한다.

오후 2시20분에는 방송인 봄이 대낮에 클럽 분위기를 만드는 '드라이빙 클럽'을, 오후 4시5분에는 가수 김홍국과 영화감독 봉만대가 진행하는 '털어아 산다'가 방송된다.

지난해 가을 개편을 통해 팟캐스트를 지상파 라디오로 옮겨오는 시도를 했던 SBS는 이번엔 '펀앳' (Fun&Pot)을 모토로 라디오에 팟캐스트와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각오다.

5년 만에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맡게된 김홍국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라디오 봄 개편 기자간담회에서 "SBS 라디오 2시간을 제가 임대했다. 이제 이 2시간은 내 것"이라며 "송중기가 나오면 대성공이고 알파고와 대결도 하고 싶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채널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과거 가수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거미라도 될 것 그랬어'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방탄조끼'로 소개하는 등 잦은 실수로 화제가 됐던 김홍국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짜여진대로는 잘 안할 것"이라고 말해 파트너가 된 봉만대 감독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19금' 토크를 선보였던 봉만대 감독은 "늘 생방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동시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해 수위 높은 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새벽 2~3시 야한 밤에 방송을 하고 싶다.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빨리 (새벽시간대로) 갈아타겠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두 명의 개그맨이 진행하는 콘셉트 때문에 '컬투쇼'에 도전하게 된 윤형빈·양세형은 "우리 두 명 다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안다"며 "청취자를 친구로 만들려 온다는 마음으로, '컬투'형 남들과는 다른, 젊은 느낌의 패턴으로 조금씩 (청취율을) 따라잡아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희석은 "기왕이면 동시간대 1위를 하고 싶다"며 "주부 청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인상 깊은 사연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친구 3분과 함께 초창기 사비로 점심을 사고 싶다"는 공약을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후 2시에 클럽 음악을 선보이게 된 봄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운전하다가 많이 졸린 시간대인 만큼 정신이 번쩍 들게 하겠다. 백설희 선생님과 현아의 음악이 리믹스된 음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외에도 파워FM(107.7MHz) 프로그램 중 주말에 방송되던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트'를 평일 밤 10시로 옮겨 확대 편성했다. '배성재의 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연애, 직장생활, 결혼, 스포츠 등 남성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남성을 겨냥한다는 각오다.

오후 10시에 방송되던 '정엽의 파워스 테이지 더 라이브'는 '정엽의 뮤직하이'로 이름을 바꾸고 새벽 1시로 시간을 옮긴다. '에프터클럽'은 일곱명의 DJ 중 정기고가 빠지고 '가을방학' 보컬 계피가 새로 합류한다. 이번 개편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연철뉴스



브로맨스 대세 ... 태양의 후예 '송구' 커플 눈길

(brother+romance) (송중기·진구)

로맨스는 점점산중이지만 브로맨스는 순항 중.

재난, 액션, 휴먼까지 '복합장르'라고 해도 무방할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정체성은 멜로드라마다. 주인공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 분)의 '송중커플'은 물론이요, 서대영(진구)-윤명주(김지원)의 '구원커플', 그리고 유시진과 서대영의 '송구커플'도 있다.

두 '상남자'가 오랜 기간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쌓아온 거침없는 '브로맨스'는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 남녀 커플 로맨스와는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힘든 일은 서 상사님이"... "살아있으면 바로 대답합니다"

남편의 사랑만이 애듯한 것은 아니다. '남남 커플'의 우정도 애듯할 수 있다. 특전사라는 직업 탓인지 위험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두 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격조하고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했던 흔들림으로 사고 현장이 다시 한 번 무너지고, 유시진의 무전이 끊기자 한말에 달려온 서대영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살아있으면 바로바로 대답 좀 합니다"라며 '츄데레'(겉으로는 통명스럽지만 속은 따뜻하다는 뜻의 신조어)스러운 모습으로 '브로맨스'를 표현했다.

오밀조밀 예쁜 얼굴에 유들유들 능청스러운 유시진과 남자다운 얼굴에

무뚝뚝한 서대영은 생김새도, 계급도,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군인정신으로 똘똘 뭉쳤다는 공통점에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전우애로 두 사람의 우정은 남녀의 사랑 못지않은 깊이를 자랑한다.

첫 회부터 강렬한 액션으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던 두 사람은 이야기의 노스페이스 때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후배들에게 쫓겨 도망치며 시청자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하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액션 사이 사이 "보고 싶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 되니까 무섭습니다" 같은 '달살'멘트까지 빼놓지 않았다.

◇ '송구커플' 케미는 현실이지 말입니다

"똥과 제리"처럼 늘 한 사람이 당하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서로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의 관람포인트는 아무래도 송중기와 진구의 '브로맨스' 아닐까요."(웃음)

진구는 '태양의 후예'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본만 봤을 때는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중기씨와 눈을 맞추면서 경쾌하고, 또 호흡을 맞추자보니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해 드라마 속 두 사람의 '브로맨스'에 힘을 더 실어줬다.

송중기도 "('브로맨스'는) 육십삼년 부분이다. 남자들이라는 외장은 게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기자간담회 내내 서로에

게 농담을 던지며 드라마에서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유시진과 운동을 하다 좌절을 겪은 뒤 상사로 복귀 중인 서대영, 그리고 20대에 이미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송중기와 30대 들어 빛을 본 진구의 조합은 어딘지 닮아있다.

드라마처럼 사선을 함께 넘나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려 하는 두 남자에게 시청자는 감정을 이입하며 환호한다.

◇ '성스'부터 '시그널'까지... 드라마 '브로맨스' 중심

송중기는 앞서 2010년 KBS 2TV '성균관 스캔들'에서도 '브로맨스'를 선보인 적이 있다. 당시 송중기는 화려한 복장으로 치장한 여림 구유하로 분해 무뚝뚝한 반항아 걸로 문재신 역의 유아인과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이어 KBS 2TV '학교2013'에서는 이종석과 김우민이 오후로 틀어진 우정, 애증을 연기하며 진한 우정을 보여줬다.

2014년에 방송된 tvN 드라마 '미생'에서 사회생활이 낯선 장그래(임시찬)를 내내 다그치던 오상식(이성민)이 장그래가 옆집 인턴 때문에 누명을 쓰자 장그래를 두둔하며 내뱉은 "너희 때 때문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라는 대사는 전장터같은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저런 상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주기도 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35	00 세계 물의 날 특별생방송 소중한 자원 물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30 UHD 특집 만반방 거문방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 365(재) 05 세기의 라이벌 미래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공감력
2 30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숨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튜튼생활채널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TV유치원 3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40 동물의 세계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라잉
4 00 쾌도나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강(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5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시사선단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차널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이웃질 질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감력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특별기획 베이비시터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천개의 비밀 에메이징 스토리(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 걸작 다큐	10 우리동네 예능		10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불났다 남편반상(재)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24 30 MBC 100문토론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 1			
05:00 EBS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안아침	(김선영의 카레점점과 파프리카사과샐러드)	15:15 세계사 시간여행	(부두의 흥망성쇠)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나스타페! 히말라야)	15:30 피터레빗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신비와 모험의 땅,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의 노래)
07:00 레이디 비그	11:40 한국기행(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21:30 한국기행
07:30 뽀로로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코코몽3	(섬이 부르는 사랑 노래, 조도)
07:45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우리	16:30 코코코 다크(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땃땃땃 유치원1~3	12:40 지식채널e	16:45 땃땃땃 유치원1~3(재)	(생존 - 최후의 생존, 누리리)
08:45 코코코 다크	12:50 숨은 한국찾기	17:30 뽀로로 뽀로로	22:45 리얼강행록
09:00 코코몽3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7:45 로보카 폴리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딸, 조혜련과 어머니 2부)
09:20 원더볼즈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시대공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4:00 로보카 폴리	19:00 레이디 비그(재)	24:05 지식채널e(재)
(아이를 만지는 엄마의 착각)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대나무 숲 가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2월 14일 癸卯)

<p>子</p> <p>48년생 기사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60년생 철저히 살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72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84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63, 40</p>	<p>午</p> <p>42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54년생 처음부터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66년생 탄력적이려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78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84, 45</p>
<p>丑</p> <p>49년생 허황된 일이나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61년생 옹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73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85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52</p>	<p>未</p> <p>43년생 발상이 막연하다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5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67년생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돌아서 봐야겠다. 79년생 체계를 잡고 요령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73</p>
<p>寅</p> <p>50년생 지성으로써 시종일관한다면 궁극적으로 성취하리라. 62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74년생 추이를 보고 진퇴를 결정 하자. 86년생 거주장소라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행운의 숫자 : 19, 22</p>	<p>申</p> <p>44년생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영광이 따르리라. 56년생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68년생 굳이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80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꼭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80, 16</p>
<p>卯</p> <p>51년생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3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75년생 길사로 연결되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87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0, 53</p>	<p>酉</p> <p>45년생 원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57년생 핵심 사람들을 유념해야 빈틈이 없을 것이다. 69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꾸어서는 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7, 48</p>
<p>辰</p> <p>40년생 기운차게 붙잡아야 할 때다. 52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4년생 필수 불가결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얽매어서 애를 쓰게 된다. 76년생 자료를 잘 살펴라. 88년생 어렵겠다. 행운의 숫자 : 56, 03</p>	<p>戌</p> <p>46년생 경계심을 버리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 58년생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기지 않는 것이 낫다. 82년생 반드시 실용성을 전제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0, 27</p>
<p>巳</p> <p>41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될 것이다. 53년생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니 계속 밀어붙여라. 65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답이 보인다. 77년생 대의를 도모하자. 89년생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86</p>	<p>亥</p> <p>47년생 하나가 성사되면 연쇄적인 진전이 있겠다. 59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71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면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83년생 들고 나는 것이 균형이 이루게 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28, 6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